

기능·역할 강화 시급한데...광전연 분리 추진 우려 목소리

연구 인력·재정 지원 전국서 가장 적어... 연구 여건도 열악 평가 시·도, 향후계획 등 함구...단체장 공약 등 산하기관 운용 의도인 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2015년 9월 통합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도의 이같은 방침이 정책이나 단체장 공약, 정부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응하기 쉽게 사실상 산하기관으로 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타 지자체들이 연구원의 기능·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인력을 늘리고, 투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연구원은 가장 적은 인원

에 시·도의 예산 지원 규모마저 최하위 수준이어서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위상 및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시·도가 연구원을 광주·전남의 '공적 지식 자산'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독립적인 운영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재정 및 인력 구조를 개선·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인력은 38명으로 대전·세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경북(54명)은 물론 한 곳의 지자체가 운

영하는 충남(57명), 부산(50명), 인천(44명), 경남(4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수준에서 분리할 경우 강원(34명), 충북(30명), 전북(29명), 제주(23명)보다도 작은 '초미니 연구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투입 예산도 최저 수준이다. 2022년 연구원의 예산은 115억원으로 제주(157억원), 인천(149억원), 부산(140억원), 대전세종(132억원), 충남(125억원), 울산(126억원)보다 적고 경남(217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연구원에 사·도가 각각 35억원을 출연하는 등 재정 지원에 가장 인색하기 때문이다. 서울, 인천, 충남, 경남, 강원, 울산, 대전세종이 독립 청사를 갖고 충북, 전북, 제주가 무상임자를 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연구원은 민간건물을 일부 임차하는 등 연구 여건마저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행·재정적인 지원이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질 높은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적은 연구 인력에 사·도의 요구는 빗발치면서 연구 성과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도가 우선 분리를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공적 지식 자산인 광주전남연구원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 관련해 사·도, 지

방의회,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경원 광주전남연구원 노조위원장장은 "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인프라이자 시민의 삶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의 공적 자산으로, 사·도가 의뢰한 과제에 대해 기능적으로 보고서 작성만 하는 용역수행기관이 아니다"며 "지역소멸, 초광역 협력 움직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은 분리가 아닌 통합연구원으로 유지돼야 하며, 분리나 통합의 소모적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 대구 2·28 추모...군 공항 이전 특별법 논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기부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구매 행사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내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제63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차 대구를 방문해 군 공항 이전 등 두 도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을 굳건히 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대구 두류공원 2·28 기념탑을 참배하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28 기념식에 참석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13년부터 달빛동맹의 원천으로 평가되는 대구 2·28과 광주 5·18 기념식을 교차 방문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에서는 518번, 광주에서는 228번 시내버스가 도심을 달리고 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기부 행사도 했다. 강 시장은 대구시청에 이어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구매 행사를 진행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대한민국의 양대 축이자 뿌리"라며 "두 도시의 공항 특별법, 달빛고속철도 등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함께 추진하고 달빛동맹

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선 "광주공항 특별법과 대구공항 특별법은 쌍둥이 특별법으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자고 서로(홍 시장과) 협의했으나 통과 못 했다"면서 "민주당이 통 큰 결단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재외동포청' 유치 신청...“인권·포용도시 광주 최적”

광주시가 732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인 '재외동포청' 유치를 본격화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광주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전달했다.

광주시는 정부 기관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과 지

역경제 활성화, 민주·인권·포용 도시 면모 부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대상에 광주 체류자 신고가 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등 선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900여명의 고려인 동포 귀환과 국

내 정착을 돕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 정착과 지원에 필요한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 인프라 등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매년 유네스코 등과 함께 세계인권 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5월 중앙아시아 재외 동포들의 거점 이 될 세계고려인단체 총연합회가 광주에서 출범한다. 20개국 40개 도시와 자매·우호 교류, 국제교류 센터·차이나 센터·광주중국 총영사관 등 국제관계 인프라를完비한 점도 광주시의 장점으로 꼽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아선호’ 옛말...남여 출생 성비 정상치로

여아 100명 대비 116명→104명...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가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선호(男兒選好) 사상으로 1990년대에는 110명을 넘었던 출생성비가 최근에는 정상범위(103~107명) 수준을 보이는 모습이다.

1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총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이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집계 시작 시점인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성비는 1990년만 해도 116.5명에 달했다. 여아 100명당 남자는 116.5명이 태어났

다는 의미다.

당시에는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향후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1990년대 110명대였던 출생성비는 2000년대로 접어들며 110명 아래로 내려왔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108명 안팎이었으나 2007년 106.2명으로 내려오며 정상범위에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총 출생성비뿐 아니라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으로 나눠 본 출생순위별 출생성비도 모두 정상범위 안이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개에서 개로도 전파

사람으로 재감염 가능성도...반려동물 백신접종 검토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많은 사망자를 만들었던 변이(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개에서 개로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려동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새로운 변이종 출현 및 사람으로의 재감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 송대섭 교수, 전북대 유광수 연구관 공동 연구팀은 반려동물인 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 바이러스의 감염 및 바이러스 전파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 '신종 감염병' 최신호(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실험용 개(비글)의 콧물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주(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감

염시키고 24시간이 지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정상견을 합사했다. 이후 7일 동안 양쪽 그룹의 임상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이 결과 감염군과 접촉군 모두 임상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폐의 조직병리학적 분석에서 감염 합병증인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이 확인됐다. 또한 델타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군에서 증식을 가진 바이러스가 콧물을 통해 배출됐으며, 개들끼리의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정상견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코로나19와 메르스 등의 인간 코로나바이러스가 반려동물인 개에서 감염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사람을 포함한 다른 개체로 전파될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반려동물에 사 비뚤되는 변이종 출현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장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종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차면서 기피가 않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갹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에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25 - 농림 312-3121-7676-91 (영광주·정문희)

갹을농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주식회사 미래도시개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85번길 8-12, 4층(대의동)
청산인 우형진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주식회사 휴먼산업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85번길 8-12, 3층(대의동)
청산인 우형진

분실 공고

• 임대아파트 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4-8 한국아파트 2차 101동 509호
• 계약자 : 노 유 진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3월 2일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2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주식회사 페어우드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85번길 8-12, 4층(대의동)
청산인 우형진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3년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4,800,000,000원 을 금 3,700,000,000원으로 1,100,000,000 원 감소하기로 하여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 220,000주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유상소각하여 발행 주식총수 74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이에 공고함.

2023년 3월 2일
해동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통제영5길 6 (중앙동)
대표이사 박찬

산행안내

3월4일(토)
▲광주호신회 3월 4일(토) (제646차 정기산행) 토끼와 거북이의 경남 사천 8경 (비포산)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